적중의 시작은 축! 금일 입상이 기대되는 선수

부산 2경주
4번 성용환
★★★★☆

토요시합에서 폭발적인 선행력 자랑하며 건재함을 과시한 성용환이 믿을 맨으로 손색 없어 보인다. 강급자 출신으로 궁합 잘 맞는 조성윤과 호흡 맞추며 동반입상 도전하겠다.

광명 6경주
5번 윤진규
★★★★☆

금, 토 양일간 2-4착하며 아쉬움 남긴 윤진규가 우승 차지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려 하겠다. 편성운마저 따라주고 있는데 선행후 버티기에 나설 권오철을 몰고갈 것이다.

광명 9경주
5번 정현수
★★★★☆

첫날 11초 30, 전일은 11초 07대의 시속으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정현수가 무난한 편성을 만났고, 타이밍 잡기에 어려움 없을거라 타 선수들이 막아내기가 쉽지 않겠다.

광명 10경주
2번 문영윤
★★★★☆

연이틀 선행 승부 펼쳤고, 전일 우승 차지한 문영윤이 내친 김에 연승 노리겠다. 전원 노조인 편성이라 침착하게 승부거리 조절한다면 다시 버틴다에 비중 두고 싶다.

광명 11경주
1번 배수철
★★★★☆

경기할수록 시속 빨라지고 있는 배수철이 단연 돋보인다. 후미 견제 위해 같은 노조 홍석한을 붙여준뒤 공격적으로 타겠는데, 궁합마저 좋아 동반입상 성공할 가능성 높다.

광명 16경주
2번 정종진
★★★★★

전 선수에게 신뢰도 높은 경륜황제 정종진의 우승은 의심할 필요가 없겠다. 타 선수에 비해 맞대결 전적 및 월등한 기량 갖추고 있어 이변 상황 없는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다.

Check Point

부산 1경주 4번 심상훈 - 과연 종속을 유지할수 있을까?

강급후 아직 우승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심상훈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겠는데, 문제는 막판까지 버티느냐, 마느냐가 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긴거리 승부로 나선다면 누구한테든 덜미 잡힐 수 있기 때문.

부산 3경주 4번 손용호 - 누구든 욕심을 낼수 있다!

기본기 탄탄하고, 경기 흐름 잘 읽어내는 손용호와 배학성이 만나 서로 의식하며 탈 것으로 보인다. 손용호가 인정 받는다면 안정적으로 흘러가겠지만 아니라면 연이틀 마크 위주였던 손용호의 경주 내용상 전개가 꼬일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자.

부산 4경주 6번 권성오 - 노조 VS 비노조, 충돌한다!

각 라인을 대표하는 권성오와 정해권이 만나 우승다툼 벌이겠는데, 권성오의 경우 창원연합팀이란 연결고리 있는 오대환, 한재호의 지원사격 받을거라 좀 더 유리하겠다. 하지만 강급 대비 준비를 많이 한 정해권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경주	축	분석	경쟁상대
1 부산 선발	4번 심상훈	불안	6번 이흥주 1번 임범석
2 부산 선발	4번 성용환	안정	3번 조성윤
3 부산 선발	4번 손용호	불안	1번 배학성 5번 이승주
4 부산 선결	6번 권성오	불안	3번 정해권 2번 한재호
1 광명 선발	6번 이재봉	안정	1번 이재옥
2 광명 선발	7번 김광진	불안	3번 박인찬 6번 임지춘
3 광명 선발	5번 박희준	안정	3번 공동식
4 광명 선발	3번 박정욱	안정	1번 이규민
5 광명 선결	1번 이동근	불안	5번 전준영 3번 임요한
6 광명 우수	5번 윤진규	안정	3번 권오철
7 광명 우수	5번 김선구	불안	6번 송정욱 2번 최순영
8 광명 우수	6번 이명현	안정	1번 이진웅
9 광명 우수	5번 정현수	안정	4번 김동관
10 광명 우수	2번 문영윤	안정	7번 정연교
11 광명 우수	1번 배수철	안정	3번 홍석한
12 광명 우결	7번 손성진	안정	1번 김태완
13 광명 특선	3번 이재림	안정	7번 김영수
14 광명 특선	1번 조영환	안정	5번 김영섭
15 광명 특선	3번 김태범	불안	6번 김홍일 7번 김용규
16 광명 특결	2번 정종진	유력	

조인대의 묵직한 두방!

오늘 하루 자신있는 경기와 함께 승부해볼만한 경기를 엄선해서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부 1R 4-6(60%) 4-1(40%)

1 임범석
2 서한글
3 오기현
4 심상훈
5 우종길
6 이홍주
7 김창수

토요경주에서 선행후 버티기로 2착하며 금요일 아쉬움 만회한 4번 심상훈이 금일은 다수의 연대세력들과 편성되어 우승까지 욕심내겠다. 이틀 연속 만나는 창원연합팀 선배인 6번 이홍주를 붙이고 2번 서한글 내지 1번 임범석을 앞세워 활용하겠는데, 협공 의지 확고하다면 심상훈과 이홍주의 동반입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어 4-6에 비중 둘만 하겠다. 하지만 심상훈이 상승세 타고 있는 임범석을 껄끄럽게 생각해 후미에 묶어두며 실리를 추구한다면 이홍주는 잘해야 3착에 만족할 수 있는 만큼 4-1은 차선책으로 염두에 둬야겠다.

부 2R 4-3-5(60%) 4-3-1(40%)

1 이일수
2 이동기
3 조성윤
4 성용환
5 이홍주
6 강철호
7 김성수

금요일 2착하며 결승 진출 좌절된 4번 성용환이 전일에 이어 금일도 우승후보로 활약할 수 있겠다. 이틀 연속 만나는 비노조 연대세력이자 우수급 출신 3번 조성윤과 앞, 뒤로 붙어타며 호흡 맞추겠는데, 성용환의 승부 거리에 따라 쌍승식이 뒤집어질 수 있어 복승식 4-3을 추천해드리고 싶다. 하지만 너무 낮은 배당에 메리트가 없어 환수율 높이는 차원에서 삼복내지 삼쌍승으로 눈길 돌려볼만 하겠는데, 이들과 비노조 연대 형성 가능하고 금주 컨디션도 양호한 5번 이홍주와 1번 이일수가 유력한 만큼 4-3-5, 4-3-1에 비중 둬야겠다.

부 3R 4-1-5(70%) 4-1-2(30%)

1 배학성
2 권용재
3 김준호
4 손용호
5 이승주
6 김재국
7 강동국

강자 빠진 일요일이고 전원 노조 출신들로 구성된 편성이라 기량상 접근할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다. 상대 활용 능력 탁월한 4번 손용호가 금주 괜찮은 컨디션 자랑하고 있어 승률 높겠는데, 무리한 주행을 피하고 1번 배학성과 적절한 타협점 찾는다면 두선수 사이좋게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어 4-1에 비중 둘만 하겠다. 하지만 둘다 마크, 추입에 의존하고 있어 전법상 부딪친다면 한선수는 3착으로 밀려나면서 배학성의 연대세력인 5번 이승주와 컨디션 양호한 2번 권용재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만큼 4-1-5, 4-1-2로 접근하는게 좋겠다.

광 6R 5-3(70%) 5-6(30%)

1 이규봉
2 엄지용
3 권오철
4 조동우
5 윤진규
6 박상서
7 김승현

잘나가다 전일 4착하며 상승세 한풀 꺾인 5번 윤진규가 금일은 강자 빠진 일요일이라 우승에 성공할 가능성 높겠다. 같은 비노조 출신이자 폭발적인 선행력 자랑하는 3번 권오철이 유도원 퇴피후 윤진규를 위해 견인차 역할 해주겠는데, 권오철이 금요일과 같은 시속만 발휘해준다면 윤진규의 배려를 받으며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어 5-3에 비중 둘만 하겠다. 하지만 전일 가벼운 페달링 선보였던 6번 박상서가 타종과 함께 내선 장악한뒤 윤진규 마크 노릴 1번 이규봉을 밀어내고 마크 꿰찬다면 입상 가능한 만큼 5-6은 받쳐두자.

광 10R 7-2-6(60%) 7-2-1(40%)

1 유경원
2 문영윤
3 홍현기
4 임 섭
5 고광종
6 박일호
7 정연교

이번 경주는 전원 노조 출신들로 구성되어 기량상 접근할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다. 전일 선행 승부로 버티며 깜짝 우승 차지했던 2번 문영윤이 다시 한번 힘쓰는 방향으로 풀어가겠는데, 궁합 잘 맞고 동반입상 경험도 두 번 있는 7번 정연교와 붙어타며 순리운영 택할거라 복승식 7-2에 비중 둘만 하겠다. 하지만 너무 뻔한 스토리에 메리트가 없어 삼복승으로 눈길 돌려 환수율까지 높여볼만 하겠는데, 강자 마크에 일가견 있는 6번 박일호와 1번 유경원이 나머지 선수들보다 기량 우수한 만큼 7-2-6과 7-2-1에 관심가져볼만 하겠다.

광 16R 2-7(60%) 2-3(40%)

1 정해민
2 정종진
3 석혜윤
4 성낙송
5 김준철
6 임유섭
7 황인혁

현 경륜 최강자로 활약하고 있는 2번 정종진이 나머지 선수들에게 인정 받을거라 동반입상 파트너만 고르면 끝나겠다. 정종진이 87년생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동반입상 경험 상당히 많은 7번 황인혁과 붙어타며 호흡 맞추겠는데, 정종진이 황인혁을 챙길 의지 강하다면 두선수 사이좋게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어 2-7에 비중 둘만 하겠다. 하지만 1번 정해민이 수성팀으로 둥지 옮긴후 첫 결승전이라 3번 석혜윤, 6번 임유섭과 연대를 형성하겠는데, 최근 상당히 좋은 경기력 선보이고 있는 석혜윤이 욕심낼거라 2-3은 눈여겨볼만 하겠다.